

정부가 방해한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시민들이 드립니다

시민모임 '일제 반인륜 범죄 단죄 위한 30년 발걸음에 경의' 양금덕 할머니 "지지 않고 씩씩하게 모든 일 헤쳐 나가겠다"

정부가 방해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시민들이 대신 수여했다.

상을 받은 양금덕 할머니는 "앞으로도 하나도 지지 않고 씩씩하게 모든 일을 헤쳐나가겠다"고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1일 오후 2시에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카페에서 양금덕 할머니에게 시민들의 뜻을 모아 '우리들의 인권상'을 수여했다.

당초 이 자리는 고(故)이금주 태평양양정경희생자 광주유족회장 별세 1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삶과 발자국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고 고인의 유지를 되새기는 추모제 자리였다.

하지만, 지난 6일 외교부의 제동으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서훈(국민훈장 모란장) 추서가 무산되자 시민들의 뜻을 담아 양금덕 할머니에게 인권상을 시상하는 자리로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의 시상식은 2부에서 진행됐다.

시상은 시민모임 일반회원 3명(장연주, 이정현, 유지민)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양 할머니와 활동을 같이 해온 일반 회원들이 상을 수여하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다.

상장에는 "귀하는 광주전인소송을 시작으로 일제의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외롭고 막막한 시간, 수많은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 귀하를 어느새 사람들은 우

리 시대의 양관순이라 불러왔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한 30년 그 고단한 발걸음에 경의를 표하며 이상을 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상을 전달한 유지민(10)양은 "(양금덕 할머니가)일제강점기 이후 많이 무서웠을텐데도 우리를 위해 맞서 싸워주셨다"면서 "할머니의 용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을 전달했다"고 기뻐했다

상장과 함께 꽃다발을 건네받은 양 할머니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씩씩한 할머니로 인정해줘서 고맙다"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앞선 1부에서는 고 이금주 회장의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도 진행됐다.

영상 시청을 하던 양 할머니는 "저 때는 우리가 다 젊고 예뻐. 우리가 저 때부터 싸웠어. 그게 벌써 30년이 지났네..."라는 탄식과 한숨을 짓다 결국 울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금주 회장과 함께 소송을 준비했던 장면이 나오자 양 할머니는 "요 앞에 두 손 모으고 있던 게 나와. 회장님이 참말로 말도 똑바로 잘하고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제"라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제가 진행되면서 최근 양 할머니의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가 무산됐던 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국연 시민모임 이사장은 "지난 7월에 대법원에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 징집하지 못하도록 할머니 발목을 걸더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왼쪽 두번째) 할머니가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한 카페에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인권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다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팔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일본으로부터 사죄 배상은 당장에 못 이루어더라도 우리 사회에 서만큼은 정당하게 평가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추천했던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30년 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긴 세월 싸워왔던 할머니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인권도시 광주는 양 할머니뿐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 모두에게 더 이상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애초 계획대로 인권상 서훈이 수여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해 추천한 훈장 서훈 대상자에 대해 다른 기관이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평생을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롭고 처절하게 일본과 싸워온 양 할머니의 아픔을 살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법인택시 신차 구매 보조금 3억6600만원 초과 지급”

광주시 감사위, 택시조합 수사 요청...공무원 징계도

광주시가 '법인 택시 선진화 지원 사업'으로 지급한 신차구매 보조금이 엉터리로 집행·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집행 관리를 허술하게 한 택시조합과 인직원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택시조합은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50개 법인에 보조금 총 3억 6600만원을 시 배분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 택시조합은 광주시로부터 수년간

받은 보조금 45억 7500만원을 76개 법인택시 업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체별 적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신청 서류조차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측의 부당 지급 수법은 예를 들면 신차구매비 배분 대수(10대)로 지원될 보조금이 3500만원인데도, 1대분(350만원)을 초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게 감사위의 주장이다.

감사위는 3억 6600만원을 회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다른 4명은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또 광산구 공무원 1명, 남구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각각 훈계,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남은 택시 교체 자금 일부를 조합에 지원 하는 것이다.

2단계 기간인 2016~2019년 법인 택시 3407대를 대상으로 서비스·경영 상황을 평가해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지원 물량은 업체별 면허 대수에 따라 차등 배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공항 15일부터 주차장 통합정산소 운영

광주공항이 오는 15일부터 공항 내 주차장 통합 정산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공항은 그동안 공항 내 1주차장, 2주차장 출입구에서 각각 따로 정산소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항 입구에 공항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인

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공항 출구 한 곳에 통합 요금 정산소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정산소는 모두 철거해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 면수를 70여면 늘릴 예정이다.

광주공항은 이번 조치로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

위해 정산소를 통과하지 않은 채 공항 도로상에 주차하는 등 양체 주차 차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공항은 또 1주차장 출구 위치를 2주차장 인근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10분이었던 무료 주차시간을 20분으로 확대하고, 사전정산을 이용할 경우 출차 제한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다. /유연재 기자 yjyou@

‘김정은 선물’ 풍산개 우치공원 온다

대통령기록관서 공문 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동물원에 오게 됐다.

광주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의 사육을 맡아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우치동물원은 측은 사육 공간을 마련하고 사육사를 선정하는 등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곰이와 송강을 데려올 예정이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2019년 곰이와 송강의 새끼 중 한 마리인 '별' (암컷)을 분양받아 기르고 있다. 약 3년만에 부모견과 자식견이 다시 만나게 됐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곰이와 송강의 분실을 방지하고 적응을 돕기 위해 특별관리하고, 일반인 관람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곰이와 송강은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로 대



풍산개 '곰이(앞쪽)'와 '송강'.

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 우치공원은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풍산개를 맡아 기르게 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뒤에도 대통령기록물인 곰이와 송강을 길러왔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 없이 풍산개를 키울 수 없어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